



금주의 농사 메모

기 간 2024년 4월 22일 ~ 2024년 4월 28일

제 공 경상남도농업기술원

요 약

벼농사는 종자소독, 침종, 못자리 설치, 밭작물은 맥류 적미병 방제, 고구마 정식, 참깨와 옥수수 파종요령, 채소는 양파·마늘의 구비대기 수분관리, 노지고추 정식요령, 황사대비 온실 및 가축관리 요령과 과수의 개화기 관수요령 및 복숭아씨살이좀벌 방제를 놓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1 벼농사

- ✓ (소금물가리기) 자가 채종은 충실한 볍씨 선별을 위하여 까락제거 후 소금물가리기를 실시하는데, 소금물가리기는 3~10분 이내로 한 후 바로 깨끗한 물로 씻은 후 그늘에 말려 볍씨 소독까지 보관하거나 바로 볍씨 소독을 실시한다.
- ✓ (종자소독) 약제침지소독법은 적용약제를 물 20ℓ에 종자 10kg을 볍씨밭아기(온탕소독기)를 사용하여 30℃에 48시간 담가 소독한 후 깨끗한 물로 2~3회 세척 후 싹틔우기 실시하고, 온탕소독방법은 물 100ℓ에 마른상태 벼 종자 10kg을 60℃에 10분간 담가 소독하고 냉수에 10분 이상 종자를 담가 식혀야 한다.
- ✓ (종자침종) 균일한 싹틔우기를 위해 20℃, 5일간 담가 종자에 충분히 물을 흡수시키는데, 이때 침종기간은 물의 적산온도 100℃를 기준으로 물 온도를 감안하여 결정한다.(물 온도가 15℃일 경우 7일간 침종)
- ✓ (싹틔우기) 침종한 종자는 물기를 제거한 후 30~32℃에 어두운 조건에서 보통 1일 정도 두어 하얀 싹 길이를 1mm 내외로 키우면 적당하다.
- ✓ (못자리설치) 부직포 못자리를 너무 일찍 하게 되면 저온장해를 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지역별 안전 파종 한계기를 고려하여 파종하고 어린모 육묘는 적정 물 관리와 시기별로 출아기(30~32℃), 녹화기(20~25℃), 경화기(15~25℃)로 온도를 관리해 주어야 한다.

- ✓ (육묘관리) 부직포 육묘과정은 종자최아(1mm 내외) → 파종 → 간이출아 → 못자리 치상 → 육묘상자 물주기 → 부직포 피복 순서이며, 부직포 피복 후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흙을 상자 옆에 1~1.5m 정도 간격으로 엮어 고정시켜준다.
- ✓ 비닐하우스 못자리는 바닥에 부직포를 깔고 치상하여 수분이 일찍 마르는 현상을 방지해야 하고, 하우스에는 20~30%의 차광망을 씌워서 고온 피해나 백화현상을 예방하고 차광망을 씌우지 못한 경우에는 모판 위에 못자리용 부직포를 덮어주어야 한다.
- ✓ 입고병(모잘록병), 뜸모, 백화묘, 들뜬묘 등 예방을 위해 파종시 약제분주처리와 못자리 환경관리에 유의 하여야 한다.

※문의 : 경상남도농업기술원 기술보급과 이경근(☎.055-254-1812)

2

밭작물

- ✓ (맥류) 붉은곰팡이병(적미병)의 발생 원인은 이삭이 패는 시기부터 이삭이 여물기 전까지 비가 잦고 95% 이상의 습도가 3~5일 동안 지속되면 발생하는데 밀·보리에 발생하면 수량 피해 및 미숙립이 발생하고 발아율이 떨어지므로 등록된 약제로 1차 방제는 출수기에 실시하고 1차 방제 10일 후 2차 방제를 실시한다.
- ✓ (고구마) 비닐멀칭 재배를 하면 보온, 보습, 토양유실 방지, 잡초 발생 억제 등으로 효과가 있으며 심는 시기는 5월 상순부터 6월 하순까지 주로 실시하는데 작업순서는 70~75cm 폭 두둑 짓기 → 건전묘 심기 → 제초제 살포 → 비닐 위에 흙 덮기 순으로 한다.
- ✓ 고구마 묘를 심는 방법은 수평심기, 개랑수평심기, 휘어심기, 구부러심기, 곧추심기가 있으며, 고구마 묘를 심을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사질토양은 묘를 3~5일 음지에다 보관하였다가 묘를 경화시킨 다음 심는 것이 초기 활착과 생육에 좋고, 큰 묘와 작은 묘를 섞어서 심지 말고 따로 심어야 하며, 묘를 심을 때 잎이 떨어지면 활착과 뿌리내림이 더디고 수량이 감소하므로 잎이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심는다.
- ✓ 묘를 심을 때 묘의 선단 잎 4~6마디부터 덩이뿌리가 되므로 그 부분이 땅속에 묻히도록 하되 생장점은 땅속에 묻히지 않도록 주의하고, 묘는 알계 심는 편이 덩이뿌리 형성에 좋으나 건조하기 쉬운 밭의 경우는 다소 깊이 심어야 한다.
- ✓ (참깨) 비닐 피복 재배에 적당한 파종 시기는 경남 지역은 4월 하순이며 파종 전에 입고병 예방을 위해 적용약제를 이용하여 종자소독을 실시하고, 비닐 피복이 끝나면 소독한 종자를 한 구멍에 4~5알씩 파종하여 3~5일이 지나 싹이 트면 튼튼한 모 1개만 남기고 완전히 숨여주거나 2~3주씩 남겨 두었다가 2차에 1주 1본만 남기고 숨여준다.

- ✓ (옥수수) 풋옥수수 노지재배(보통재배)의 경우 직파는 4월 하순, 육묘 이식은 5월 상순에 실시하는데, 육묘하여 옮겨심기할 때는 파종 후 15일 이내(2~3엽기)에 보통 이랑나비 60cm, 포기사이는 25cm 간격으로 심는다.

※문의 : 경상남도농업기술원 기술보급과 류선미(☎.055-254-1813)

3 채 소

- ✓ (마늘·양파) 본격적인 구비대기인 4~5월에 토양이 건조하면 토양 중에 있는 양분을 뿌리에서 흡수할 수 없게 되어 수량이 현저히 감소하므로 7~10일 간격으로 30~40mm 정도씩 2~3회 물대기를 해주거나 이동식 스프링클러 등을 이용하여 물을 주면 증수 효과가 매우 크다.
- ✓ 그러나, 물을 너무 많이 주어 토양이 지나치게 습하게 되면 뿌리가 숨을 쉬지 못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여 생육과 구가 비대하는데 장애를 초래하고 고랑에 잠길 정도로 준 후 물을 빼지 않고 그냥 두면 멀칭에 의해 수분증발이 억제되어 장기간 너무 습한 상태로 유지되어 습해가 나타나기도 한다.
- ✓ 물을 줄 때는 분수호스나 스프링클러 등으로 이랑 위로 주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러한 관수장치를 하면 물 주는 것뿐 아니라 물비료로 웃거름도 겸하여 줄 수 있으므로 노동력도 절감 가능하며, 관수장치가 되지 않아 고랑에 물을 대어주는 방법을 이용할 경우는 고랑에 물이 잠긴 상태로 장시간 계속 두지 말고 일찍 물을 빼 주는 것이 좋다.
- ✓ (노지고추) 퇴비와 석회는 밭을 경운하기 2~3주 전에 살포하고, 화학비료는 이랑을 만들기 5~7일 전에 살포하는데, 인산은 전량 밑거름으로 주고, 질소와 칼리 60%는 밑거름, 나머지 40%는 웃거름으로 준다.
- ✓ 정식하기 7~10일 전부터 묘를 외부 온도에 적응할 수 있게 경화처리 실시하고, 3~4일 전에 비닐을 멀칭하여 지온을 상승시켜주면 아주 심을 때 뿌리의 활착이 좋아진다.
- ✓ 정식하기 전날 모판에 충분한 물을 주어 뿌리에 상토가 잘 붙어 있어 모종을 포트에서 빼내기 쉽도록 하고, 정식은 마지막 서리가 온 이후 맑은 날 실시하며 심는 깊이는 묘상에 심겨져 있던 깊이로 심는 것이 좋은데, 너무 깊게 심으면 지하부 줄기부위에서 새 뿌리가 나와 활착이 늦어지고 얇게 심으면 땅 표면에 뿌리가 모여 건조 피해 발생하기 쉽다.



<고추 서리피해>



<고추 아주심기 적정 깊이>

- ✓ (황사대비) 봄철 황사발생이 많은 시기이므로 기상청의 황사 예보와 대책 방송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황사에 대비하여 비닐하우스 세척용 물을 준비해 두어야 한다.
- ✓ 심한 황사가 발생할 경우는 비닐하우스의 출입문과 환기창을 닫아 외부 공기와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황사로 인해 일조가 부족해지므로 전구를 이용하여 인공 광을 보충해주어야 하며, 황사가 지난 후에는 빠른시간내에 시설 하우스(비닐, 유리)를 분무호스나 스프링클러 등을 이용하여 쌓인 황사를 씻어내 주어야 한다.

※문의 : 경상남도농업기술원 기술보급과 최병걸(☎.055-254-1822)

4 과 수

- ✓ (개화기관리) 만개기부터 한 달간은 과실비대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세포 분열기로 세포수가 증가되고 신초생장, 꽃눈분화 등의 생리작용이 활발하므로 물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는 시기이며, 나무가 건강하게 자라고 좋은 과실을 얻기 위해서는 적당한 토양수분이 필요하다.
- ✓ 토성에 따른 관수량과 관수간격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되, 과수원 지형과 과종 및 품종을 고려하여야 한다.

토 성	관수량(mm)	관수간격(일)
사 질	20	4
양 토	30	7
점 질	35	9

- ✓ 관수요령은 한 번에 지속해서 주는 것보다 1~2시간 관수하고 일정 시간 멈추었다가 다시 관수하는 방법이 유리하며, 사질토양에서는 지속적인 관수시 토양 아래로 수직적 배수가 되기 때문에 관수 간격을 나누어 여러 번 관수해 주는 것이 효율적이다.
- ✓ 물주는 방법 또한 어떤 한 가지 방법이 모든 과수원에 절대적으로 좋은 것이 아니며, 토성과 지형적인 조건에 따라 또는 물의 양과 수질에 따라 다르게 선택될 수 있다.
- ✓ (병해충) 복숭아씨살이좀벌 피해가 발생한 과수원에서는 껍질이 썩었거나 땅에 떨어진 과실을 모두 수거해 불에 태우거나 물에 담가 과실 속의 월동 유충을 제거하고 수확할 때도 피해를 받은 과실이 과원에 남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 복숭아씨살이좀벌 성충이 왕성하게 산란하는 때는 4월 중순~5월 상순, 매실 열매 지름이 1cm 되는 시기에 약 1주 간격으로 2~3회 약제를 살포하여 방제하며, 정오 무렵에 살충제 뿌리는 것이 효과적이다.

※문의 : 경상남도농업기술원 기술보급과 김형준(☎.055-254-1823)

- ✓ (사료작물) 하계 사료작물은 사료용 옥수수, 수수류, 사료용 벼, 사료 피 등이 있으며, 작물의 생리적 특성, 재배지의 토양 및 기상여건을 고려하여 적합한 작목을 선택해야 한다.
- ✓ 사료용 옥수수는 암이삭 비율이 높고 습해에 강한 품종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며, 파종 적기는 4월 중하순(지온 10℃ 이상), 이모작의 경우 동계사료작물 수확 후 5월 말~6월 상순 파종한다.
- ✓ 수수류는 가축 기호성은 다소 낮지만 재배가 쉽고 재생력 뛰어나 생산성 높으며, 파종 적기는 5월 상중순(지온 12℃ 이상), 사료용 피의 파종시기는 5월 중하순, 이모작 시 5월 말~6월 상순이다.
- ✓ 황사발생 시 가축관리 요령

단계별	조치사항
발생전	① 발생예보 등 황사정보 파악, ② 방목장의 가축은 축사로 대피 준비, ③ 건초, 볏짚 등은 덮어 둘 준비, ④ 방제기, 동력분무기 등 사전 점검
발생중	① 가축 축사 안으로 신속 대피, ② 축사의 황사 유입을 막기 위한 출입문과 창문 등 닫기, ③ 건초, 볏짚은 천막 등으로 덮어 황사 차단
종료후	① 축사 주변, 내·외부 세척 소독, ② 황사가 끝난 후 2주 정도 질병 발생 유무 관찰, ③ 이상 증상 발견 시 가축방역기관 신고

- ✓ 환절기에는 축사 내·외부 온도차 등에 대비하여 축종 및 축사시설에 따라 축사 내부 환경관리(청결) 및 방풍·보온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 (한우) 송아지는 추위에 약하므로 환경온도가 10℃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보온 관리를 통해 호흡기 질병과 설사병을 예방하고 신선한 물을 충분히 급여해야 한다.
- ✓ (젓소) 규칙적이고 위생적인 착유 관리 및 축사 바닥 청결관리 유의해야 한다.
- ✓ (돼지) 일교차가 5℃ 이상이 되면 질병 저항력이 떨어지므로 유의하고, 특히 면역력이 약한 자돈의 경우 급격한 온도 변화로 질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 ✓ 돼지 성장단계별 적정 사육 온도 및 습도 범위

성장단계	적온범위(℃)	적정습도(%)
임신돈, 웅돈	16~21	50~60
포유모돈	18~21	50~60
포유자돈	30~35	60~70
이유자돈	22~29	60~70
육성초기	20~27	60~70
육성후기	18~22	50~60
비육돈	16~21	40~60

✓ (닭) 20℃ 이하 환경에서 1℃ 낮아질때마다 사료 섭취량이 약 1%씩 증가하므로 사료비 절감을 위해서는 적정온도를 유지해야 하며, 1주령 이내 병아리는 저온에 취약하므로 입식 전부터 계사 내부온도를 올려줘야 하고, 계사내 습도가 높으면 곰팡이 등 발생으로 질병 위험이 높고 습도가 낮으면 먼지발생으로 호흡기 질병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적정 습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 육계 성장단계별 적정 사육 온도 및 습도 범위

주령	온도(℃)	습도(%)
0~1일령	34	70
2~3일령	32	70
4~6일령	30~32	70
2	28~29	65
3	26~27	60
4	24~25	60
5	22~23	60
6	21~22	60
7	18~21	60

✓ 가축 전염병 방역관리를 위해 농장 출입 시 소독 철저, 내부관리 철저, 축사 출입 시 장화 갈아신기 및 손 소독, 축사 내부 매일 소독 등 철저한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문의 : 경상남도농업기술원 기술보급과 정맹금(☎.055-254-1833)